

학술적 프레젠테이션 모델 발굴을 위한 '서울대-매경 대학생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

1. 개최 배경

서울대학교는 교수학습개발센터 등 기관의 설립을 통해 대학 교육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서울대학교 교수들을 대상으로 강의 컨설팅 등 선진 교수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위해서 자기주도적 학습법 교육, 학생연구, 글쓰기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프레젠테이션 이론 워크숍과 발표 자료 제작 실습 강좌도 운영하고 있다.

'프레젠테이션'은 단순히 취업이나 마케팅 수단에 머물지 않고 창의적인 지식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대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하고 기본적인 소양이다. 따라서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전국 대학에서도 교수학습센터 등을 통해 프레젠테이션 관련 강좌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는 2010년 개소 10주년을 맞아, 매일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대학생들의 학술적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서울대-매경 대학생 프레젠테이션 경진대회'를 기획하게 되었다. 본 대회를 통해 한국 대학생들의 창의성과 열정을 기반으로 한 의미 있는 프레젠테이션 모델을 발굴하고 널리 공유하고자 한다.

2. 대회 준비 과정

2009년 1학기에 전국 대학생이 함께 하는 프레젠테이션 대회를 구상하고 국내외

박은미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학습지원부 팀장

관련 대회 사전 조사 및 벤치마킹을 시작하였다. 2009년 6월부터 시민교육단체인 애듀플랜, 전국 4년제 교수학습센터 연합체인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학생 동아리인 서울대프레젠테이션연구회와 파트너 관계를 맺었다.

이어 서울대 경영학과 조동성 교수를 심사위원장으로 초빙하고 2009년 9월에 매일경제신문사와 공동주최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이후 교육과학기술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SK Telecom에 후원을 요청하고 대회 준비위원회 위원 12명을 구성함으로써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들어갔다. 준비위원회는 전공별 서울대 교수진과 후원업체 및 프레젠테이션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2009년 10월부터 총 5회의 준비 모임을 통해 구체적인 대회 운영 방안을 마련하였다.

3. 대회 진행 과정

2010년 1월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시작으로 2010년 2월 1일부터 5일간 참가 신청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는 총 56개 대학 133팀, 255명이 참가하였다. 예선에서는 1팀당 전공 관련 주심사자 2명, 매체제작 관련 보조 심사자 2명이 심사하였으며, 총 300점 만점으로 영역별 상위 24팀을 본선에 진출시켰다.

■ 신청팀 지역별 분포

지역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서울	전남	전북
신청 팀	3	14	18	16	72	3	1

■ 신청팀 대학별 분포 (3팀 이상 참가, 가나다 순)

신청 팀	17	10	6	5	4	3
대학	서울대	부산대	안양대	연세대 고려대	경북대 안양대 동아대 한양대	건국대 서울산업대 금오공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 제주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성대

2차 심사는 본선에 진출한 24팀이 제출한 10분 분량의 동영상과 발표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12팀씩 2그룹으로 나누어 서울대 교수와 외부 전문가 5명이 심사에 참여하였다. 심사방식은 창의력, 논리력, 발표력, 디자인 영역별로 30점씩 총 120점 만점으로 집계하고, 4단계의 종합평가 방식을 병행하였다. 본선 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심사위원이 참여한 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선 진출팀 8팀을 선정하였다.

결선 대회는 2010년 4월 16일에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61동)의 320호 대형 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오전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결선 진출팀의 리허설이 있었고, 오후 1시부터 서울대 음대 학생들의 바이올린, 가야금 합주 공연을 시작으로 8팀의 치열한 경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결선 대회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 결선 대회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Rehearsal	9시 30분~12시	팀별로 약 20분
	13시~13시 30분	오프닝 공연 (바이올린, 가야금 합주)
Opening	13시 30분~14시	(1) 개회사 - 임경훈(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소장) (2) 환영사 - 조동성(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심사위원장) (3) 축사 - 김하석(서울대학교 특임부총장) - 김관복(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관) - 김세형(매일경제신문사 논설실장) (4) 내·외빈, 심사위원 소개
	14시~15시 20분	1부 발표 (4팀 10분씩 발표, 30분간 공통 질의응답)
	15시 20분~15시 30분	휴식 시간
	15시 30분~16시 50분	2부 발표 (4팀 10분씩 발표, 30분간 공통 질의응답)
	16시 50분~17시 10분	휴식 시간 (점수 집계)
Contest	17시 10분~17시 40분	(1) 심사평 - 조동성(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심사위원장) (2) 시상 - 김하석(서울대학교 특임부총장) - 이창훈(매일경제신문사 차장) - 이승식(한국마이크로소프트 부장) - 조동성 심사위원장 (3) 폐회 (4) 방청객 경품 추첨 (5) 사진 촬영
Reception	17시 40분~ 18시 10분	간단한 다과 파티

아프리카 원주민 복장을 하고 축구공을 던지면서 발표하는 팀, 아나운서 역할을 하다 실험 가운을 입고 박사로 분(扮)해서 발표하는 팀, 스티브 잡스처럼 자유자재로 발표 자료를 조작하는 팀 등 이번 대회 결선 진출팀들은 다양한 주제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그리고 발표에 활용한 소프트웨어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파워포인트 2007, 2010 베타버전과 애플사의 키노트 등으로 다양했으며, 발표자료 디자인도 기발한 아이디어가 넘치는 것들이 많았다.

결선대회 심사는 서울대 교수 및 외부 전문가 12명이 참여하여 창의력, 논리력, 발표력, 디자인의 네 가지 영역에서 5단계로 평가하고 수상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번 대회 최종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수상자 명단

	팀명	발표주제	팀원	비고
대상	이주현	A대학교 내 신재생발전소 건립 방안	이주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
우수상_창의상 인기상	11TM	축구는 아프리카도 춤추게 한다. -축구를 통한 아프리카 인도적 지원 방안-	신재호 강평안	서울대학교총장상 SK Telecom사장상
우수상_논리상	새 바람	Y세대, 기업의 새바람이 되다	김기범 제영순 황민선	서울대학교총장상
우수상_발표상	The Creative	스마트폰의 보안문제와 해결방안	문현수 최호걸	매일경제신문사 회장상
우수상_디자인	Dream Team	2080 엔지니어 -20대의 경쟁력을 80세까지-	김태명 김요셉	매일경제신문사 회장상
장려상	라온제나	두근두근 한국의 미 -Pit-a-pat, Design of Korea-	장미선 어한나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사장상
장려상	Triple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한 디자인 매니지먼트 전략	김준환 이윤숙 주슬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사장상
장려상	시대소녀	탄소고정을 이용한 유기폐기물의 자원화	강장미 정수진 진달래	SK Telecom사장상



김하석 특임 부총장
(서울대학교)



김관복 대학지원관
(교육과학기술부)



김세형 논설실장
(매일경제신문사)



트리플 (장려상)



이주현 (대상)



11TM (우수상)



Q&A



조동성 심사위원장
(서울대학교)



기념촬영



대회 전경



오프닝 공연



다과 파티

4. 대회를 마치고

이번 대회 운영 방침을 ‘학생들과 함께하는 축제’로 정하고, 가능한 많은 학생들이 본 대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서울대프레젠테이션연구회 학생 10명이 결선 대회 운영 스태프로 참여하였으며, 많은 학생들이 이번 대회에 관심을 가지도록 결선 대회를 43-1동, 61동, 83동 PDP로 생중계하였다. 최종 결선에는 약 120명이 청중으로 참여하여 발표팀들에게 많은 성원을 보내 주었다.

이번 대회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평가모임은 결선 진출팀, 심사위원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그리고 ‘서울대프레젠테이션연구회’는 결선 진출 8팀의 발표를 평가하는 오픈세미나를 통하여 서울대 학생들에게 새로운 프레젠테이션 모델을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평가회에서는 대회 운영상의 문제점, 대회의 성격, 그리고 향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되었다.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참가자 리허설 진행 시 동선 및 시간 안배 문제와 동영상 촬영 때 마이크 문제, 그리고 S/W 종류와 버전에 따른 시간 지연 및 파일 호환성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다음으로 참가자들이 이번 대회 성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존 프레젠테이션 대회가 발표와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번 대회 역시 같은 성격으로 예상하고 준비한 팀 가운데는 발표 주제의 논리성과 창의성 즉 내용적 부분이 심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2회 대회에서는 학술 프레젠테이션을 지향하다는 점을 좀 더 부각하여 홍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선 대회 시기가 일부 대학 중간고사 준비기간과 겹쳐 3월 말에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결선 진출팀을 10팀 정도까지 늘리자는 의견도 있었다.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이번 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한 프레젠테이션을 널리 알리고 좋은 모델로 제안하기 위하여 본선 진출팀 24팀의 발표 자료 및 발표 영상을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하여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시작으로 프리젠테이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공유하고, 확산시켜 우리 대학생들이 창의적 리더십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애플 최고경영자), 버락 오바마(미국 대통령), 피로리나(HP 전 회장)의 프레젠테이션을 연구하고 모방하고 있는 한국 대학생들이 자신만의 개성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가득 찬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